

“시민 생명·안전 수호 감사...늘 무사하시길”

9일 ‘소방의 날’ 맞아 조대여중 5명

동부소방서 찾아 손편지 등 전달

김영일 서장 “따뜻한 응원 큰 힘”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용기와 사명감인지 가늠되지 않아요. 늘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9일 광주 동부소방서에는 양손에 종이 박스 등을 든 ‘깜짝 손님’이 찾아왔다.

이들은 조선대학교 여자중학교 2학년 박예린 학생 등 5명으로, 소방의 날(11월9일)을 맞아 학생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 등을 전달하기 위해 소방서를 찾았다.

종이 박스 안에는 편지 외에도 응원 문구, 형형색색의 꽃, 다양한 동물 캐릭터, 직접 그린 그림 등을 함께 코팅해서 만든 수제 책갈피 30여 개 그리고 직접 구운 계란관 판 등이 있었다.

편지와 책갈피 등은 최근 학교에서 진행된 독서 관련 행사에서 학생들이 작성·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의 날(11월9일)을 맞아 조선대학교 여자중학교 2학년 박예린 학생 등 5명이 광주 동부소방서를 찾아 손편지와 수제 책갈피, 구운 계란관 등 선물(오른쪽)을 전달했다.

〈광주동부소방서 제공〉



학생들은 편지에서 동부소방서 직원들을 ‘존경하는 분’, ‘오늘도 수고하시는 분’ 등으로 지칭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데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

한 학생은 “불길 속에서도, 재난 현장에서도, 늘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용기와 사명감인지 저로서는 가늠되지 않는

다”며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늘 무사하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 외에도 “당신을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안전합니다”, “소방관은 정말 멋진 직업”, “생명을 살리는 일이 멋지다고 생각해 구급대원이 꿈이 됐다”는 말로 감사함을 표했다.

선물을 전달받은 동부소방서 직원들은 학생

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소방차·구급차 체험과 119구조견 캐릭터 ‘일구’ 키링 등 홍보 물품을 전달하며 안전 문화 확산을 당부했다.

김영일 동부소방서장은 “학생들의 따뜻한 응원은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며 “국민의 관심과 격려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재영 기자



광주 김가타 학생, 전국 이중언어말하기대회 ‘금상’

광주 월곡초등학교 6학년 김가타(사진 왼쪽 세 번째) 학생이 지난 8일 서울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제13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에서 금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교육부와 (주)LG가 이주배경 학생들의 이중언어 학습을 장려하고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주관했다.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는 이주배경학생 초등부 25명, 중등부 29명 등 54명이 참가해 한국어와 모국어를 활용해 주제를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9월30일 송정다치문화도서관이 개최한 ‘광주 지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초등부 1명, 중등부 2명 등 3명이 참가했다.

초등부 광주대표로 참가한 김가타 학생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이번 대회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활용해 ‘나는 월드컵레스 피구부 주장’을 발표해 호평 받았다.

중등부에서는 중국 출신 동임미래학교등학교 3학년(3학년) 학생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신비올레타(1학년) 학생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박선욱 기자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국제합창제 ‘금상’

나주시는 10일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최근 부산에서 열린 ‘제22회 부산국제합창제’에서 청소년부문 3위와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부산국제합창제는 국내외 합창단이 참가하는 국제 규모의 행사로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나주 대표로 출전에 세심한 화음과 풍부한 감성으로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2005년 APEC정상회의를 기념해 창설된 이 대회는 올해로 21회를 맞았으며, 인도네시아·일본·중국·필리핀 등 5개국 56개팀, 2천71명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해외 12개팀과 국내 7개팀이 본선에 올라 기량을 겨뤘다.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나주 판타지아’, ‘두껍이’, ‘치키 차가 초코쥬’ 등 한국 창작 합창곡을 완성도 높게 선보였으며, 나주배를 상징하



는 금빛 한복을 입은 단원들이 국악기와 어우러진 무대로 한국적 감동을 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짧은 연습 기간에도 단원들이 열정과 팀워크로 훌륭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여수 한영대 사회봉사단, 취약계층 연탄 후원

여수시는 “최근 한영대학교 화공플랜트산업전공 학생들과 지도교수로 이뤄진 사회봉사단 40여명이 광림동 취약계층에 연탄 1천장을 후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후원 행사는 광림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이뤄졌으며, 봉사단은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독거노인 등 3세대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신광수 지도교수는 “매년 진행하는 연탄 봉사활동에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며 “이웃들이 따뜻한 겨



울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풀뿌리지원센터 ‘마을공동체 10주년’ 한마당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는 “최근 월산면 물구십리권역 농촌체험휴양마을 일대에서 ‘담양군 풀뿌리공동체 한마당’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10년의 발자취, 새로운 도약의 출발’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마을공동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온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를 나누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수북산인산농악대와 우화등산팀의 공연으로 막을 열었으며 정철원 담양군수, 장명영 담양군의회 의장, 박종원·이규현 전남도의원, 신현기 경제교통과장 등이 참석해 공동체 활동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1부에서는 ▲10주년 기념영상 상영 ▲공로패 시상 ▲공동체상 수여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고 이어 풀뿌리밴드와 무정라인댄스, 부동새마을회, 청춘마을자치회, 북정리새마을회 등이 참여한 어울림 공연이 펼쳐졌다.

2부 명랑운동회에서는 각 공동체가 팀을 이뤄 협동과 화합의 의미를 나누며 축제 분위기를 이었다.

양순애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장은 “지난 10년은 담양의 마을공동체가 뿌리내리고 성장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체가 돼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사랑의열매-사랑나눔희망키움 ‘인재 육성’ 협약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광주 사랑의열매)는 “최근 사랑나눔희망키움과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은 광주 사랑의열매, 사랑나눔희망키움, 노틀담형제의집 등 3자가 체결했다.

사랑나눔희망키움은 지역 사업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3천720만원을 기탁할 예정이다. 기탁된 기부금은 노틀담형제의집으로 지원돼 ‘인재 육성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황의남(황술촌 대표) 사랑나눔희망키움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능과 열정 있는 돌봄 아



동과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힘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연상 기자

육군 31사단 ‘영광군 예비군센터’ 개소식

육군 제31보병사단은 10일 오후 2시 영광군 ‘통합 지역예비군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일용(소장) 31사단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는 장세일 영광군수, 김강현 영광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유관 기관 및 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곡성군에 이어 광주·전남에서 두 번째로 개장한 영광군 통합 지역 예비군센터는 영광읍 서면대, 대마포랑면대, 북·서부 통합면대 등 7개 지역 부대를 하나로 통합해 구축됐다.

31사단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비군센터를 통해 지역 예비군 관리와 훈련의 질 향



상은 물론이며 지역 주민들의 관련 민원 처리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재영 기자



목포해경, 어선 화재 예방 합동점검

목포해양경찰서는 “최근 목포 북항과 동명항에서 동절기 대비 어선 화재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 사용이 늘고 장기간 조업에 따른 어선 화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목포해경을 비롯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시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소방서, 목포어선안전조업국이 함께 참여했다.

합동점검반은 어선 11척을 표본으로 선정해 전기·연료계통, 소화기 비치 및 기능 상태, 전열기구 고장 상태 등 안전 관리 현황 전반을 확인하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통신문을 이용한 신고 방법 등을 교육했다.

목포해경은 점검에서 발견된 화재 취약점인 부분별한 배선(전선 연결)과 노후화된 소화기 등과 관련해 관내 어촌계장과 어업인 2천400여 명에게 서한문 알림톡으로 전달해 안전의식 제고를 당부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동절기는 어선 화재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어업인 스스로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학교법인 조선대 어울림 한마당 성료

조선대학교가 법인 소속 구성원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8일 조선대 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이수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과 김춘성 조선대 총장, 양고승 조선대 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법인, 조선대, 조선이공대, 조선간호대 및 산하 중·고등학교 직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CHOSUN, We Are One!’을 주제로 열린 어울림 한마당은 조선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법인 산하 모든 교육기관의 직원이 함께한 자리로 상호 이해와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특히 5년간 최대 1천500여원이 지원되는 ‘글로벌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되고 내년 조선간호대와와의 통합을 앞두고 있어 이번 행사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더욱 컸다.

행사장에는 SW중심대학사업단의 AI·SW 체험부스, CSU창작마을센터의 3D프린팅·머그컵·키링 제작 체험부스 등이 운영돼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했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조선대학교 가족 모두가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양성과 대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욱 기자

결혼

▲신인수(장성 신약국)·정선미씨 차남 희진(논산 참약사대온약국)군, 박승호(이주경제 광주취재본부장)·서미애(서울신문 광주전남취재국장)씨 차녀 세원(대전 건강건강약국)양=16일(일) 오후 12시30분 드레스 웨딩을 신관 지젤홀 1층(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최규룡(기아 오토랜드 광주)·김춘애씨 장남 대현(살레시오고 교사)군, 오형수·강성란씨 딸 신영양=29일(토) 오후 3시 드레스 웨딩을 본관 4층 라비엔홀(광산구 도천동 147-29).

▲문영호·유신임씨 장남 창진군, 신현구(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김옥희씨 장녀 해경양=30일(일) 오후 3시 서울대 연구공원 웨딩홀(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02)878-0465, 010-3721-8259).